

거대 공룡 대형 유통점과 사활건 승부 첨병 김경남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

“지역 영세상인 보호 제도적 지원 필요”

“대형유통점의 진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비할 시간을 주자는 말이지요.”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남 상무이사는 6년째 지역의 영세상인을 대변해오고 있다.

그도 2000년대 초반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했던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상인이 겪는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김 상무이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롯데마트 수완점 사업조정 기각과 관련해 “사업조정신청제도의 제정 취지와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이제는 지역 사회가 상생경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지역상권과의 갈등은 지역 경제의 10년 뒤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경제사안이라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 진출과 관련해 그동안 대처가 늦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전부터 광주시에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었지만 최근 들어 이슈가 된 것뿐”이라며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틀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유통업체가 우후죽순



늘었고 비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들이 대기업 유통업체의 진출을 막아달라고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대기업 유통

업체들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체가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나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기간 동안 대기업 유통업체의 점포 출점을 규제하거나 출점 속도를 조절시키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광주시의회에서 의결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역시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기업형 슈퍼마켓들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이기 때문. 더구나 광주에는 대형유통업체들도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기업형 슈퍼마켓 등 중형 규모의 마트 입점을 노리는 기업들은 점포 포화를 우려해 신규 진출보다 기존 점포를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상인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문기기자 emlee@kwangju.co.kr

“지역에서 세계 지향하는 교육 펼쳐야”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 ‘실력 전남 교육’ 책 펴내

“바람 없는 항해는 없습니다. 희망을 뒤편으로 삼아 교육의 푸른 바다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미래는 우리에게 신대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교육감으로 8년째 전남교육행정을 이끌고 있는 김장환교육감이 내달 10월 일기만료를 앞두고 전남교육의 발전취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펴냈다. 제목은 ‘실력 전남교육을 향한 선택과 도전’(다지리 펴냄)

“전남교육, 체제를 넘어 성장으로” 등 총 5부로 구성된 책에는 자신이 교육감으로 선출돼 침체한 전남교육의 실상을 극복하고 성장극면으로 전환한 8년간의 역경과 도전을 사진과 함께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책에는 2001년 교육감으로 취임한 뒤 전남교육의 환경을 잡고 나감에 대한 심정,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과 도전으로서 ‘실력 전남’ 시책이 태동하게 된 배경, 추진과정과 성과 등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

김 교육감은 “책을 통해 전남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의 힘을 길러나가야 할 것인가,



또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이며, 그러한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제시코자 했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인사들의 통상적인 백서와는 달리 책은 예시에 형식을 빌렸다.

“작은 교실 속의 큰 변화” ‘미래형 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의 힘을 길러나가야 할 것인가,

로 풀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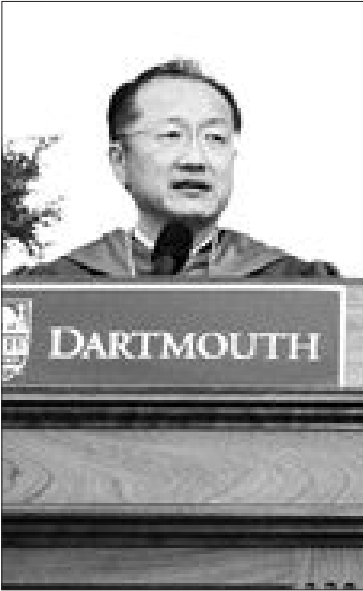
“배를 만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바다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꿈은 노력한 만큼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직자의 관점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찾아 나서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등 ‘실력 전남’을 향한 교육관에서는 김 교육감의 평소 교육철학이 잘 드러난다.

또 에필로그에서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지향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세계를 지향하는 교육’ ‘지역 여건을 강점으로 키워가는 교육’ ‘다함께 이루어가는 교육’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김 교육감은 1958년 육천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뒤 일선학교 교사, 장학사, 전남교육연수원장 등을 거쳐 화순고 교장으로 퇴임했다. 2001년 제14대 교육감으로 당선됐으며, 2005년 15대 교육감으로 재선한 뒤 지금까지 전남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이비리그 첫 한국인 총장에 들뜬 다트머스대

김용씨 17대 총장 취임... 美 하노버 환영 물결

미국 동부 명문 8개 사립대를 지칭하는 아이비리그의 다트머스대는 첫 한국인이자 첫 아시아인 아이비리그 총장을 대대적인 환영의 물결로 맞이했다.

240년 역사의 다트머스대를 이끄는 17대 김용(50, 미국명 Jim Yong Kim) 총장의 공식 취임식이 열린 22일(현지시간) 다트머스대가 있는 뉴햄프셔주 하노버는 온통 들뜬 분위기였다.

다트머스대 캠퍼스의 잔디 광장인 ‘그린’에 한국 농악대의 풍물놀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 총장이 학위복 차림으로 모습을 나타내자 취임식장을 가득 채운 5천여명의 참석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로 김 총장을 반겼다.

지난 3월 총장으로 선출돼 7월1일부터 집무를 시작한 김 총장은 23일

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맞춰 공식 취임식을 열었다.

취임식에는 존 린치 뉴햄프셔 주지사, 다트머스대 재단 이사장인 찰스 웰드먼 프레디맥 최고경영자(CEO), 아이비리그 첫 흑인 총장인 투스 시몬스 브라운대 총장, 김 총장의 국제 교류구 활동의 오랜 동료인 풀 퍼머 하버드대 교수, 제임스 라이트 전 다트머스대 총장 등 주요 인사들과 재학생, 동문,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해 김 총장의 취임식을 축하했다.

아버지에 간이식 ‘효자 공무원’

담양 월산면사무소 황성진씨



는 둘째 아들 황성진 씨(30·사 진)가 자신의 간이 아버지에게 이식할 수 있다 는 간이식 적정 판정이 나오자

간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의 병 회복을 위해 자신의 간이 이식한 담양군 부자(父子) 공무원이 귀감이 되고 있다.

아버지 황정환 씨(55)는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산하 월산면농업인상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최근 간암 수술을 받았으나 경과가 좋지 않아 간이 이식 받아야만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자 월산면사무소에서 근무하

지난 18일 이식수술을 성공리에 완료 했다. 아들 두 부자(父子)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에서 회복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수술경과가 좋아 아들 황성진씨는 보름 정도 회복기간을 거쳐 퇴원할 것으로 보이며, 간이 이식받은 아버지 황정환씨는 거부반응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인사

- ◆KBS ▲광주방송총국장 박인섭

내방

- ▲서규열(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부회장)씨

함평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 복지시설 위문



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 차성만 대표이사 외 임직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 함평군 아동복지시설인 시온원과 사론의 집을 방문, 각각 라면 40박스를 전달하고 위문했다.

호남대 수시모집 지원 학생 야외 면접



호남대(총장 장병완)는 최근 광산캠퍼스에서 2010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학생 면접을 최초로 야외에서 실시했다.

〈호남대 제공〉

광주지방 경찰청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광주지방 경찰청 제 1기동대(대장 김정 이흥수)는 최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 형제사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진입로 정비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한전 전남본부 릴레이 헌혈운동 전개



한전 전남본부(본부장 정종필)는 23일부터 전남본부 소속 27개 사업소가 모두 참여하는 릴레이 헌혈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전 전남본부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축

- ▲정후채·박성희씨 장남 육석군 후인반려·관리에게서 차녀 후인티 디엠 끼우양=26일(토) 오후 1시 광주 상록웨딩홀 4층(장미홀)
- ▲강희재·손정애씨 막내 성주군 김양식(패남)·김준순씨 차녀 유경양=27일(일) 오후 1시 웨딩의 전당 금호 3층 노블레스홀.

동창·동문회

- ▲광주승일고 25회 동창회(회장 전현주) 정기총회=25일(금) 오후 7시 북구 오치동 옥당식당. 011-636-1038.
- ▲조대부고 30회 동창회(회장 조항훈)=25일(금) 오후 7시 지석한우촌(동림병원 맞은편) 062-513-5006, 011-601-6275.

향우회

- ▲재광 순창향우회(회장 공병철) 2009년 추계야유회=26일(토) 오전 8시 광주역 앞 버스출발, 부부동반으로 무주적상산. 010-3624-0030.
- ▲제88회 지산지역 한마당축구대회(지산체육회장 이춘범)=10월3~4일(개회식 3일 오전 9시30분) KT

&G 광주제조장 운동장.

종친회

- ▲진양(진주) 하씨 광주회수회(회장 하대희) 월례회=26일(토) 오전 11시 제주삼다갈치(대인동 중앙시장) 협사거리). 062-233-4747, 010-3607-3369.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재)해천 재광 영광군 향우정학회(이사장 이형만) 창립식=25일(금) 오후 6시 북구 동림동 해천빌딩 7층 사무실. 강대의 사무국장 010-4192-5182.
- ▲오치중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학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모집

- ▲수공예 문화센터 회원 모집=리본공예·비즈공예·한지공예·CA방과후지도사 전문 자격증, 취미반, 창업반 모집(1대1지도), 비즈공예·리본공예는 무료수강. 수공예협회 서부지구지부(구 송원대학 정문) 062-367-1040, 010-7942-6597.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토요일화

교실 '우리나무 바로알기' 수강생 모집=26일(토) 오전 10~12시 중의공원 일대에서 전통수목과 야생화 현장체험 및 탐구학습. 접수순 마감 참가비 5천원. 062-521-9041.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모집=담양 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14회 광주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기간(10월~24일까지), 일시(11월19일~22일), 전남대학교 융복합문화관 4층 시청각실. 062-529-7576(www.gjhrff.com)

▲동구 전문봉사단 교육생 모집=동화구연·생활속의 침술·침·부황, 30일까지 교육 후 봉사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동구청 보건소건물 2층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등보통 수강 모집=FREE TIME 제도, 담임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의 시험 실시, 소수 정예, 주말반 가능. 062-223-0582.

▲거동 불편한 어르신 모집=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부러 재가노인복지센터(062-266-6321~2)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건강요법 강좌(자연치유력 향상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매주 화요일, 주말반(오전 10시~12시)·야간반(오후 7시~9시) 062-230-7700~2, 010-6271-8475.

부음

▲강인철씨 별세 영민·옥희·난주씨 부친상=발인 25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이요순씨 별세 노승기·일환·미례·민자씨 모친상=발인 2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봉상소. 062-231-8901.

▲박정례씨 별세 김용득·용한·용덕·용관·정삼·정순·영란·숙란씨 모친상=발인 24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공복례씨 별세 기용서씨 모친상=발인 24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고광희씨 별세 재철·재국·안래·인순씨 부친상=발인 24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